

삼양사, 김원 대표이사 사장 재선임



삼양사는 3월3일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원(金沅) 대표이사 사장을 재선임했다.

김원 사장은 1958년 서울생으로 연세대 화학과, 미국 유타대 대학원을 거쳐 1988년 삼양사에 입사해 연구 개발본부장 및 부사장을 거쳐 2001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.

삼양사는 2005년 매출액이 9844억원, 당기순이익이 620억원을 기록했으며, 2006년 경영목표를 매출액 1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.

한편, 삼양사는 주주들에게 보통주 1주당 현금 1150원, 우선주 1주당 12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.

<화학저널 2006/03/06>